

대화와 소통을 지향하는 새로운 토론모형 고찰

- 서울대학교 SNU 토론한마당을 중심으로

김 중 영 *

- I. 들어가며
- II. 서울대학교 SNU 토론한마당
- III. 새로운 토론모형의 탐색
- IV. 나가며

■ 국문요약

토론의 방점은 논리의 우위를 내세워 상대를 논파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설득하는 데 두어야 한다.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를 강조해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증하다가도 상대의 고유한 입장을 이해하며 넓은 품과 아량으로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은 논리 못지않게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토론의 무게중심을 논리에서 수사(修辭)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와 소통에 근거하는 토론모형으로 서울대 SNU 토론한마당을 주목하고, 토론주제와 토론모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토론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한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제공하고 합의와 실천을 지향하는 새로운 토론모형은 변증적 태도와 수사적 소통을 특별히 강조한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yesora@snu.ac.kr

I. 들어가며

소통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삶은 소통을 전제로 한다.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소통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최근 소통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방증한다. 교육현장에서도 소통교육이 대세다.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교육을 위해 토론을 권장한다. 토론식 교육, 교육도 토론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일게다. 그런데 그 좋은 토론이 전개되고 교육되는 현장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토론이 갖고 있는 많은 순기능·교육적 기능들이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상대에게 내 논리의 우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있는 것 같다. 어찌 토론이 그런 용도로만 쓰이겠는가? 토론과 토론교육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해와 공감을 지향하는 토론, 대화와 설득을 지향하는 토론, 논쟁이나 논파가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론, 이런 토론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기에 급급해서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보면서 늘 가졌던 생각이다. 찬반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생각을 드러내고, 이 생각을 상대와 진솔하게 나누며, 합의가 필요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토론은 상대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상대와 나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훈련의 장이어야 한다. “소통 없는 실존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일갈한 아스퍼스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소통이 꼭 필요할 진대 왜 토론에서는 그런 모습을 쉬이 볼 수 없는 것일까? 토론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훈련장이다.¹⁾ 상대를 논파하려고

1) ‘토론’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기표현 능력 및 상호 소통과 존중, 깊이 있는 사유에 의해

할 게 아니라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논의의 장으로 초대하여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신뢰와 다양성의 존중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야 토론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합의가 필요할 경우, 공동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공동체적 실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토론은 생각과 말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상호신뢰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토론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새로운 토론모형을 모색하면서 서울대학교 SNU 토론한마당을 주목하고 이 토론모형이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토론모형에 부응할 수 있는지 따져볼 것이다. 토론의 취지와 주제, 그리고 토론모형과 토론 심사표를 분석하여, 서울대 토론모형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토론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변증법과 수사학의 관점에서 탐구해보기로 한다.

II. 서울대학교 SNU 토론한마당²⁾

SNU 토론한마당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이 선한인재 양성을 위한 비

뒷받침되는 인성교육을 위해 일견 유용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토론의 밑바탕에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깔려 있을 때만 달성 가능하다. 토론이 논리의 합리성을 겨루는 논리적 목표에 치중하게 될 때 위와 같은 목적에서 오히려 멀어지기 쉽다. 그리고 상대에게서 논리적 결함, 오류 등을 찾아내 지적하고 상대를 논파하고 자기 논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면 토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가장 유용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토론의 성과는 토론이 끝난 뒤에 시작된다. 그 토론이 '무엇을 남겼으며 어떠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졌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 2) 2장의 내용은 지난 8년간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공동연구자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한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 고치고 다듬었음을 밝힌다. 지난 8년 동안 1학기 초에 시작해 2학기가 끝날 무렵까지 함께 만나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여러 준비위원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심사와 평가에 참여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자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 그렇다면 ‘왜 토론인가? 토론은 선한 인재양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토론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문제 등에 대해서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과 함께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화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자기 입장을 견지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함께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토론을 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토론한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토론에서 이겼다고 해도 자신의 입장이 참·진리임이 공표되는 것도 아니다. 토론은 상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생각을 정교화하고, 생각의 차이로부터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을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동하는 대화이다. 토론을 통해서 토론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위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위치지우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에 동참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호 대립되는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타자와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날 때 토론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의견·입장 등을 표출하고 교환하며 그 안에서 지혜를 모은다. 토론은 합의와 동의와 약속을 이끌어내는 소통과정이다. 우리는 토론하면서 민주 사회의 시민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SNU 토론한마당은 지식이나 논리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3) 의견의 차이를 갖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서 나와 다른 타자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나의 이해와 지식 그리고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SNU 토론한마당은 여기에 하나의 목표를 추가한다. 바로 토론을 통해 선한 인재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단순히 논리의 우위만을 결정하는 토론대회를 지양하고자 하였기에 토론한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제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다.

1. 주제 및 취지문

SNU 토론한마당은 지금까지 ‘올바름 내지 정의’, ‘진리 내지 진실’, ‘경쟁의 유용성과 한계’, ‘이성과 행복의 관계’, ‘타자의 권리와 사회 갈등’,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의 충돌’, ‘사랑과 좋은 삶의 관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더 넓은 사회로의 진출을 예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삶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이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었다.

1회 대회 주제는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였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올바른 것인지를 선택은 삶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는 일이다. 일찍이 올바른 삶에 대한 문제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격렬하게 토의된 바 있다.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당위나 의무적인 행위 지침에 대한 문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덕목으로서 정의에 대한 논의를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중요성을 넘어 개인주의화가 가속화되고, 나아가 자기주의가 당연한 삶의 원리 중 하나로 수용되기까지 하는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선택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침해 한다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 참된 행위 지침, 다시 말해 지침의 진실 내지 진리 여부를 가늠하는 문제를 건너 뛸 수가 없다. 결국 올바른 내지 정의의 진실 여부가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데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회 대회의 주제를 진실 내지 진리 추구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끌었다.

2회 대회에서 이 주제는 구체적으로 진실이나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제기된다. 진실의 추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진실의 추구가 자기, 타인, 공동체의 차원에서 반드시 가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에 반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진실을 거부한다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를 다뤘다. “진실을 거부할 수 있는가?”

1회와 2회 대회가 고전적인 철학의 문제를 다룬다면, 3회와 4회는 근대 이후의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또 오늘날에 들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경쟁과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다룬다. 이 두 주제는 간접적으로 진보라는 주제와 관련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좋은 삶, 즉 번영 내지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찰하도록 만든다. 이에 3회는 “경쟁은 바람직한가?” 4회는 “이성의 발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경쟁은 현대 사회의 기본 원리로 간주되며 자기개발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은 시장 경제의 핵심 분배 원리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쟁은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적 하에 우리 삶을 종속시키며 심리적으로 황폐화되고 타율적인 삶을 살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즉 경쟁은 곧 다윈주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폭력과 불공정한 방식의 경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우리들은 경쟁의 폐해를 적지 않게 겪어왔다.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정확히 어떤 점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줄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경쟁은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울리히 벡이나 앤서니 기든스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성찰적 근대’라고 진단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여러 능력 내지 잠재력 중 이성의 승리가 이론의 여지없이 공인되어 온 역사적 흐름에 대한 성찰이다. 인간의 이성 능력의 발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계몽사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행복과 번영을 달성하는데 핵심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이성의 발휘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의 행복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이란 인간 영혼의 탁월한 발휘에 달려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 이성의 상상력이나 공감 능력과 같이 인간이 지닌 다양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3회와 4회에서 다룬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20세기를 장악했던 갈등과 투쟁일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성장은 권리 대 권리의 충돌, 공동체와 개인의 충돌이라는 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회와 6회는 이 문제를 토론테이بل에 올려놓았다.

5회는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요인에는 개인의 권리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갈등을 자아내고 증폭시킬 뿐이다. 한편 악셀 호네트가 ‘인정투쟁’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사회 갈등이 이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주장이 공존하며 나아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는 점은 타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무한 투쟁과 폭력적인 갈등이다. 특히 이 점은 개인 대 개인의 권리 충돌 차원 보다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중에서 타자란 누구인지를 검토하고 집단 대 집단의 권리 충돌이 지니는 사회적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파악과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우리는 타자의 권리를 부정할 권리가 있는가?”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방역 지침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의 관계가 사회마다 여실히 다름을 드러내주기도 하였다. K방역이라 불리며 모범으로 인정받았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을 시민들이 기꺼이 수용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개인 대 공동체의 문제를 다뤘은 것만큼이나 그리 간단히 지지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공화주의적 자유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

란 공동체의 이익과 불가분하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의 양립불가능성을 강조한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공동체와 개인의 갈등이 그야말로 함께 논의되고 조정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표방해야 할 기본 일 것이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6회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7회에는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왔던 ‘사랑’과 ‘좋은 삶’에 관한 관계를 생각해보았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 ·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 좋은 삶이 무엇인지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인터넷과 SNS상에서 고독의 공간이 넓을수록 삶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워진다는 목소리들과 함께, 사랑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되는 현상을 목도하기도 한다. 과연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

8회에는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다룬다. 인류는 지난 몇 백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발전이 밝은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연자원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자원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력이 빠르게 발달할수록 자원이 고갈되는 속도도 빨라진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오염물질들이 지구의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발전이 지속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세대 이후를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은 망가진 지구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의 경고가 옳다면, 그리고 환경과 파괴와 기후변화를 멈추지 못한다면 미래의 과국은 필연이다. 여기서 책임의 윤리가 발생한다. 이 책임은 계약 관계에 의한 책임과는 다르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에 태어날 자들을 위한 책임, 우리는 그들에게서 얻을 이익이 없다. 그런데 미래 세대는 현 세대의 선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

다. 과연 “현재세대는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1회부터 8회까지의 토론주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4회 SNU 토론한마당의 취지문 전문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주제: 이성의 발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성(reason)”이란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행동의 이유(reason) 또는 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서양철학의 고전적 전통에서 이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주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서양철학자들은 이성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한 삶의 본질이 바로 이성적 활동의 탁월한 수행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근대의 과학혁명으로 상징되는 이성의 발달이 인간 사회와 문명에 획기적 진보를 촉발시키고 이에 따라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인류 역사에서 기아와 질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발달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수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오늘날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의 비율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 자동차와 비행기, 오디오와 TV,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수많은 문명의 이기(利器)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뿐 아니라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고 있습

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발달은 또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이념을 확산시켰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가 철폐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며 성차별과 인종차별 및 소수자 차별의 부당성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성의 발달이 인류의 행복을 보증할까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성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행복은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기아와 질병의 위협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성의 발달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을 탄생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늘날 전 지구적 규모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인류 전체가 절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인류는 20세기에 무려 7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바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1만 5천개의 핵무기는 단숨에 수십억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전쟁의 위협과 더불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의 발달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를 위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삶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경제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미세먼지 등의 공해 문제,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범람,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번영을 위해 효율적인 경제 성장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연 21세기 인류가 앞으로도 자신의 문명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성의 발달과 더불어 전 지구적 전쟁의 위협과 생태계의 파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초래된 것에 더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

리에게 대량 실직 사태와 초양극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기계의 등장으로 각종 제조업계와 서비스 업계, 금융계,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심지어 예술 창작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방위적 영역에서 인간에 의해 수행되던 일이 이미 일부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자동번역기의 급속한 발전 또한 앞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멀지 않은 미래에 대량 실직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이미 2016년 6월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물론 노동은 고된 것이므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개인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단지 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일에서 얻는 보람과 사회적 관계의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약 70년 후인 209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단지 0.003%에 해당하는 첨단 IT 기업 경영자와 연구원, 정치인, 인기 연예인 등의 이른바 “플랫폼 스타”들이 고급 일자리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나머지 99.997%에 달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플랫폼에 종속되어 인공지능 로봇과 힘겨운 일자리 경쟁을 벌이거나 기본소득으로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성의 발달과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또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연산 능력은 플라톤 이래 19세기 말까지 이성적 사고 능력의 전범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은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연산에서 컴퓨터의 상대

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시작된 인공지능 연구는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연산을 넘어 인간의 모든 이성적 사고 활동을 컴퓨터로 구현해보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대표되는 머신러닝 기술에 근거한 인공지능 연구의 급격한 발전은, 주어진 프로그램만을 수행하는 종래의 인공지능을 넘어 관측 데이터에 기반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례가 바로 2016년 3월 이세돌 기사를 연과함으로써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그 답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은 서양철학의 고전적 전통은 어찌면 잘못된 생각 아니었을까요? 행복한 삶의 본질을 이성적 활동의 탁월한 수행에서 찾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또한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요?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혹시 상상력이나 창의력, 감정, 감수성, 또는 공감 능력인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인류의 행복과 우리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성의 발달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이나 창의력, 감정, 감수성, 또는 공감 능력의 발달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곧 이성 발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성의 발달을 통해 근대의 자연과학 혁명이 이루어졌고 이는 오늘날의 찬란한 과학기술 문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발달은 이제 바로 이러한 이성적 능력을 인간만큼 또는 인간보다 더 잘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어내고자 시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SNU 토론마당은 이러한 이성의 발달이 과연 인류 전체의 행복과 우리 개개인의 행복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이성의 발달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모형

SNU 토론한마당 토론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각을 세워 상대를 논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열린 자세의 소통을 지향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팀을 찬성/반대, 긍정/부정으로 나누지 않고 주장1팀과 주장2팀으로 명명한다. 제한 시간 안에 승패를 가르는 형식의 토론에서 토론의 목표가 논파가 되지 않기는 어렵다. 논파(論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상대의 논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상대의 논리에서 허점·맹점·모순을 찾아내어 성립되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상대 논리를 파괴하는 것, 이는 논리 싸움이 되는 논리적 토론의 목표일 수는 있으나 공통 실천을 목표로 하는 소통적 토론에서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토론의 목표는 논파가 아니라 설득이고 공감이기 때문에, 토론의 과정은 상대의 논리에서 허점과 오류를 찾아내 논파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논리와 견해와 의도를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만들어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나아가 이후의 삶 속에서 그의 생각이나 행위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공통 실천이라는 토론의 궁극적 목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SNU 토론한마당의 토론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표1) SNU 토론한마당 토론모형

순서	주장 1 팀	순서	주장 2 팀	숙의시간: 팀당 1회(2분)사용
1	(갑) 입론 [4분]	2	(갑) 입론 [4분]	
3	각 팀 (갑) 상호질의응답 [6분]			
5	(을) 반론 [4분]	4	(을) 반론 [4분]	
6	자유토론 [12분]			
7	(을) 최종 발언[3분]	8	(을) 최종 발언 [3분]	

대개 토론은 논제별 대립각을 세워 상대를 논파·설복하는 말하기, 즉 논쟁으로 인식하나, ‘논쟁(論爭, Argument)’과 ‘논의(論議, Discussion)’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가 논리를 활용하는 다툼을 전제한 개념이라면, 후자는 논리의 상호 교환을 전제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툼을 전제한 말하기보다 논리의 상호교환을 전제한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⁵⁾ SNU 토론한마당은 이 점을 고려하여 지식인 간의 소통과 합의에 이르기 위한 말하기를 위해 기획된 축제형식의 토론한마당이다.

사회적 극한 대립이 만연하고,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SNU 토론한마당의 취지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개인·집단 간의 입장 차이를 전제로 한 생산적 논의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기 때문이다.⁶⁾ 앞서 언급하였듯이 SNU 토론한마당은 대립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각자의 고유한 입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찬성 반대로 나누지 않고 주장1과 주장2로 명명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명함으로써 찬반토론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축소하고, 경연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① 입론→② 상호질의응답→③ 반론→④ 자유토론→⑤ 최종발언의 단계를 두고 있다.

토론이라는 틀을 유지하려다 보니 각 단계별 활동이 애당초 구상했던 논 의보다 논쟁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SNU 토론한마당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단계별 말하기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⁷⁾

5) 전근대사회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안건을 말·글로 모아 결정하는 과정을 ‘회의(會議)’라고 하였던 것도, 논리의 상호 교환을 전제한 말하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개 정사는 회의(議)를 좇고, 정책(策)은 다수의 결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화기에애한 가운데 기탄없이 오가는 의논은 예의 너그러움을 갖추는 것이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조정에 득이 되지 않는다.” 『후한서』 권45, 열전35, 원안에 수록된 숙종(肅宗)의 발언. 와타나베 신이치로 (2002) 1장 1절.

6)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고도로 중첩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다양성에 기초한 합리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고, 공감과 이해를 통해 소통을 지향하는 말하기는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입론’의 과정에서 자기 팀의 입론이 위치하는 층위별 맥락과 입론을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 토론모형은 원론·이론의 이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토론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층위별 맥락의 분석과 원론·이론의 활용에 대한 것이다. 자기 팀의 입론과 관계된 대상을 둘 이상의 층위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론을 적용해 풀이한 기대효과를 제시하면 더 좋은 토론이 될 것이다.

둘째, ‘반론’의 과정에서 상대 팀의 ‘일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학에서 다루는 이론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국가·사회공동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입론도 마찬가지이다.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는 입론을 제외한다면, 일정 정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발언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반론에서 가장 먼저 설명할 것은 논제를 해결할 때 상대 팀의 주장이 지닌 의미이다. 반론에서 각 팀의 입론이 기초하는 맥락·기대효과를 상대 팀이 정리하고 팀별 주장의 일리를 확인한다면, 논쟁을 지양하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종발언’의 모두진술에서 상대 팀과 자기 팀의 입론이 지닌 의미와 각 팀별 주장의 장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토론모형은 자기 팀의 강점과 상대 팀의 허점을 대비하는 활동을 위주로 수행하지만, 이것은 논파를 위한 준비에 더 가깝다. 오히려 각 팀별 장점을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연장선에서 최종발언에서는 지적한 장점을 토대로 논제에 대한 해결방안 혹은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⁸⁾

이상의 논의를 놓고 볼 때, SNU 토론한마당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상대 팀에 대한 존중과 공정을 토대로 ‘듣기’의 비중을 늘리고, 들은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말하기의 영역을 증대시키는 것이다.⁹⁾

7) 여기에서는 기존의 토론모형과 차이 나는 부분만 특별히 강조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8) 그러니까 최종발언이 반론을 포함한 입론의 보완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토론의 결과를 포함한 입론의 보완에 대한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9) 이러한 말하기를 위해서는 논제 역시 다층적 범위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풀 수 있는 사안, 즉 방법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주제를 출제해야 한다. 전근대 과거시험의 최종 문제로 출제된 ‘책문’의 논제는 이러한 주제의 예시로서 유용할 것이다. 조선시대 ‘책문’의

3. 토론 심사표

기존의 토론모형에서 나타나는 논쟁적 요소를 지양하고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SNU 토론모형의 평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답안은 김태완(2004) 참조.

(표2) SNU 토론한마당 토론 심사표

단계	평가기준	주장1	주장2
공통	· 토론의 규칙·예절을 준수했는가? · 표현이 명료하고 간결하며 참신한가?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는가? ·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입론	·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논제를 제시했는가? · 논제의 제시과정은 논리적으로 명확한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상호 질의 응답	· 입론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질문했는가?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절했는가? · 토론에 도움이 되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반론	· 상대방 주장의 내용을 잘 요약했는가? · 상대방의 주장을 토대로 반론했는가? · 상대방의 문제를 근거 있게 잘 지적했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자유 토론	· 토론 주제에 충실했는가? · 제기된 반론을 잘 반박하였는가? · 팀원 간 상충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최종 발언	· 상대 팀 입론의 의의를 잘 평가했는가? · 쌍방의 입장이 갖는 강점을 명료히 설명했는가? · 입론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였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합계			
총평			
※ 1: 아주 부족함 2: 부족함 3: 보통 4: 잘 함 5: 아주 잘함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SNU 토론한마당의 취지 및 주제, 토론모형과 토론 심사표를 중심으로 서울대 토론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SNU 토론한마당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이에 따라 바른 가치 정립과 그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적 상황 및 미

래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물음을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8년 동안 토론한마당을 진행해오면서 느꼈던 소회를 적어 보기로 한다. 대답각을 세우며 상대를 논파하려는 기존 토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이끄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공감과 타협보다는 논리적 대결의 장으로 흐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참가한 학생들이 기존의 토론모형에 익숙한 탓도 있었겠지만 토론주제가 토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은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단순히 어려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 학술적인 진위나 우월성을 가리기 위한 토론, 서로 대답되는 이해관계의 절충을 위한 토론 등 다양한 토론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울대 토론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진위를 가리는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 1회: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 2회: 진실을 거부할 수 있는가?
- 3회: 경쟁은 바람직한가?
- 4회: 이성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 5회: 우리는 타자의 권리를 부정할 권리가 있는가?
- 6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는가?
- 7회: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
- 8회: 현재세대는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하는가?

그간 토론한마당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논의에 참여한 여러 준비위원들의 교육관, 그리고 토론을 통한 교육의 주안점에 따라 토론의 무게중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학생들의 논리적 훈련에 주

10) 그간 토론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단과대학의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왔다. 인문대학 철학과, 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공과

안점을 두고 있는 준비위원들은 토론교육을 학술토론 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목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민주시민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준비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하고 타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했다. 이렇듯 준비위원 개개인의 교육목적은 토론의 주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 주제들은 토론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우위를 다루는 토론보다는 공감하며 소통하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준비위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서울대 토론모형의 사례에서 드러난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토론모형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I. 새로운 토론모형의 탐색¹²⁾

토론과 소통능력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거리를 좁혀 때로는 협상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소양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소통은 인간간의 차이와 같음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¹³⁾ 인간은 하나같이 다르고 각자

대학 컴퓨터공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기초교육원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했다.

- 11) 가령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흄에 대한 비판은 옳은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 학술토론에서는 순전히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에서 자가 부담률을 강화할 것인가’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갈릴 것이다. 후자의 경우 내가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이렇듯 토론의 주제는 토론방식과 토론교육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12) 3장은 2022년 한국수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선토론과 품격의 수사」의 내용의 일부를 다듬고 고쳤음을 밝힌다. 학술대회장에서 여러 코멘트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토론모형에 변증법적 철학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의 오지호 선생님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 13)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말하고 행위하는 이유는 함께 존재하는 인간들이 서로 다르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에게 이해시키며 더 붙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도 완전히 같지도 않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이며 소통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소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신에 기반한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부족하다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단지 의견의 표명과 확인으로 끝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호소할 적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도 자신과 동등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혹여 제도나 환경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를 발생시킨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노력 안에 특정 입장에 호소하는 자신의 고유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도 포함된다. 토론은 이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토론모형에서는 어떠한 자질이나 태도가 요구되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변증법과 수사학의 관점에서 토론모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변증적 태도를 지향하는 토론

상호 수용적인 토론을 위해 헤겔의 변증법을 떠올려본다. 토론을 논하는 데 왜 헤겔의 변증법이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토론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호 수용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헤겔이 변증법을 내세우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바로 필자가 생각하는 토론모형과 궤를 같이한다. 주지하다시피 헤겔의 변증법은 그의 철학적

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서로 동등하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인간이 서로를 알리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며 말하고 행위하는 공동체는 형성·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통은 우리들 사이의 차이와 동등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김세원(2017) 참조.

사유를 끌고 가는 고유의 방법론이지만,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난해한 개념이다. 흔히들 변증법을 ‘정반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헤겔이 의도하고 있는 변증법의 본래 의미는 ‘지양(Aufhebung)’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지양은, 보존·부정·고양이라고 하는 삼중의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

헤겔 철학, 특히 그의 변증법적 정신에 따르면 진리란 그 자리에서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진리는 오히려 처음에 제시된 것이 반박되고 부정되고 보충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시간성과 역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처음에 제시된 것이 반박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진리가 아니라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리의 운동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록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잠재적인 형태로나마 어떤 진리가 최초에 제시된 것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운동이 일어난다. 헤겔의 이러한 진리관은 더 나아가 언어적 존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유한성과도 연관된다. 글이든 말이든 언어는 소리와 글자 이미지 같은 물질적 질료를 통해 우리의 사유에 존재의 옷을 입힌다. 그런데 이 언어적 질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 속에 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소리 하나하나가 상대의 귀로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의미의 집을 짓고, 내가 글을 읽을 때,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읽고 이에 따라 나의 머릿속에 의미의 집이 지어진다. 이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진리가 그러한 것처럼, 단 한 조각의 생각도, 명제도, 판단도, 추론도 찰나의 순간 한 번에 온전히 펼쳐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천재적 개인의 머릿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적 소통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헤겔의 변증법적 정신은 진리가 결코 단번에 성취될 수는 없고, 유한한 자들의 유한한 언어를 통해 점진적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헤겔은 또한 오류를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본다. 오류를 바라보는 헤겔의 시야가 넉넉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일단 제쳐놓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 수도 있

다.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류로 가득 찬 “회의의 길, 심지어는 절망의 오솔길”¹⁴⁾이다.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헤겔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과 회의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헤겔은 다만 오류의 길을 거쳐서만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언제나 회의가 함께 하지만, 그래도 진리란 그렇게 모든 오류를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헤겔의 변증법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정성(Negativität/Negativity) 개념을 생각해보자. 헤겔의 변증법에서 부정성은 고정된 어떤의 미규정들을 모두 그리고 완전히 남김없이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헤겔의 표현을 빌자면 부정성은 기존에 주어진 어떤 것을 완전히 해체하여 절대적 ‘유동성(Flüssigkeit/Fluidity)’을 만들어낸다.¹⁵⁾ 그 토대위에서만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이 또한 헤겔의 변증법에 내포된 주장이기도 하다.¹⁶⁾ 부정성에 대한 헤겔의 급진적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것으로 주어진 의미망 모두를 해체해본다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헤겔의 변증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사유를 절대적으로 유동화하라’라는 명제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거나 따져보지 않은 것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는 교조주의자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헤겔의 부정성 개념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교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헤겔의 변증법 철학이 토론형식을 제시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리는 결코 한 사람이 단번에 깨우치는 것일 수 없고, 여러 사람의 오류와 오류에 대한 반박을 거쳐 성취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류와 오류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과

14) G.W.F., Hegel(1977: 49).

15) G.W.F., Hegel(1977: 20) 참조.

16) 헤겔 사유의 근저에 깔려 있는 자연과 정신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대한 논의는 오지호(2020: 73-74) 참조.

정 자체가 진리의 과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또 이것이 언어라는 물질적 매개를 사용하는 유한한 인간 존재의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특성과 연관된다는 점을 확장하면, 토론이 바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박과 반론은 단지 상대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상호 협동과정의 의미를 갖는다.

2. 소통을 지향하는 수사적 토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토론형식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논리적 우위를 다투는 토론에서 공감과 소통을 끌어내는 수사적 토론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논리학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보편타당한 논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보편타당한 논리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기 마련이고, 이런 논리는 실제 인간사회에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검토의 대상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수학적 논리 위에서 세워지는 증명은 실제 삶과 유리되어 있으며,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되는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그리 유용해보이지 않는다. 수사학이 새롭게 조명 받게 되는 20세기, 수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한다.¹⁷⁾

17)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한 수사학은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꽃피웠다.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등의 사상가들이 이 학문에 주목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고대의 주옥같은 수사학 고전에서 우리는 ‘설득의 기술’, ‘영혼 인도술’, ‘훌륭하게 말하는 재주’라고 하는 수사학의 정의를 만난다. 고대 수사학은 우리에게 인간 삶의 필수조건인 소통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역사 속의 많은 수사적 사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수사학 이론가들이 현대의 문명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사학의 이론을 주창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새롭게 복원해낸 페렐만의 신수사학은 논증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은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의 수사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성찰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덕목으로 작동한다. 메이에르는 제문론(problematologie)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사학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의 행위를 묻고 답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는 수사학을 ‘주어진 문제를 두고 주체들 사이에 거리를 교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거리를 해소하는 기술을 논증으로 보았다. 메이에르는 논리와 수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답들과 답들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논리라면, 물음과 답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했다. 현대수사학의 또 하나의 주요 이론은 탐구와 이성의 수사학이다. 벨슨과 크

인간이 삶 속에서 부딪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가치판단을 요구하며, 가치판단은 보편타당한 우주의 법칙이나 합리성을 따르는 수학적 계산 위에서 있지 않다. 가치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 몸과 정신과 감정과 관계와 기타 등등의 모든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성의 적은 한 부분인 합리성이나 혹은 물리적인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또한 가치문제는 옳고 그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선택과 실천을 위해 제기되는 것이다. 가치문제는 어딘가에 정답지가 있어 그 정답지를 찾아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며 얼마나 따르고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 그 가치의 존재와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판단 및 가치에 관한 문제는 인간 삶의 문제이자,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하게 하여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학의 영역인 것이다. 토론의 주제는 모두 인간 삶에 관한 문제이다. 설령 동물에 관한 토론을 한다 해도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문제의 차원에 있는 것이지 그 동물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가령 ‘빅뱅’에 관해 과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한다면 일견 삶의 문제가 아닌 듯이 보이지만, 적어도 그 과학자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토론이 논리학적 인식이 아니라 수사학적 인식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토론이란 인간 삶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수사적 행위이며, 토론의

로스화이트로 대변되는 이 부류의 수사학자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언어사용자의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타인과 소통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의 궁극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사학이라고 강조한다. ‘뉘움’과 ‘임상’의 수사학도 현대수사학의 주요이론으로 주목할 만하다. 전성기는 수사(修辭)의 ‘수(修)’를 “도를 닦듯(修道), 품성과 지덕을 닦듯(修養), 학문을 닦듯(修學)” ‘뉘는다’는 뜻으로 이해해, 수사를 단순히 말을 장식하고 꾸미는 일을 넘어 해석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수행(修行) 차원의 ‘뉘움’을 소통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나가자고 강조한다. 이러한 ‘뉘움’의 수사학을 의사소통차원에 적용해 소통의 장애요인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연계하면 ‘임상’수사학과 만난다. 이밖에도, 초대 수사, 평화의 수사, 죽음의 수사, 파동의 수사, 화쟁의 수사 등 다양한 이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요아힘 크나페(2019)의 내용을 가지고 와 살짝 고치고 다듬었음을 밝힌다.

주제 또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던져진, 가치와 실천에 관한 수사적 물음이다. 다시말해 주제에 대한 근거를 대며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에 초점이 맞춰져 가부를 가리는 정답 찾기가 토론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 삶의 문제에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해답만이 가능할 뿐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 의견, 입장 등을 표출하고 교환하며 그 안에서 지혜를 모아 해답을, 합의와 동의와 약속을 도출해내는 수사학적 과정으로서의 토론은 민주사회에서 대단히 기초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토론은 왜 하는가?’라고 하는 토론의 근본문제를 들여다보자. 토론에서 가부(可否)를 가리는 것은 고전적인 철학적 질문으로서 논리적 증명을 요구한다. 근대 철학은 객관적인 진리의 인식을 위하여 모든 지식이 기대는 필연적이고 자명한 최초의 지식을 탐구해왔다. 인간의 모든 인식과 개념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신체성에서 비롯되며 공동체의 의식적·무의식적 합의와 동의를 거쳐 고정되는 의식적 동일성으로서, 객관성이란 생존을 위한 구호에 불과하며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진리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지자수사적인 것이다.¹⁸⁾

토론에 대한 수사학적 인식과 이에 기반한 수사학적 토론양식에 대한 고민은 유효하며 지속적인 모색을 요구하는 문제다. 새로운 토론양식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를 반영해야 한다. 하나는 논리적인 이성의 표현을 넘어 자

18) 절대적이고 자명한 진리를 묻는 철학적 질문과 그 방법으로 사용되는 엄정한 논리적 추론이, 인간 삶의 문제인 가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력하거나 도리어 해롭다는 것, 이 때문에 법철학자 페렐만은 철학은 수사학의 영역임을 주창했고, 수사학자 크로스화이트는 이성이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수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논증이론을 주창했다. 이는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 등 다양한 이론에서 확인되면서 현대세계를 신수사학의 흐름으로 이끌고 있다. 대학에서 글쓰기와 토론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신수사학의 물결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신수사학의 주창자 페렐만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철학이란 마땅히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곧 철학의 역할이란, “우리의 모든 지식이 기대는 필연적이고 자명한 최초의 지식탐구가 아니라”, “인간사회가 상호행위 시 적용하는 관점, 문화와 제도와 미래를 책임지고자 할 때 적용할 관점, 불완전한 사회체제를 완전한 쪽으로 개선시키려 합리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할 때 적용할 관점”을 탐구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철학의 관건은 가치문제에 있으며, 이는 바로 수사학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아라(2013) 참조.

신의 경험과 감성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합의와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를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만들어 설득하는 노력으로서, 타당성이 아니라 설득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IV. 나가며

사회적 현안을 놓고 씨름할 때, 상충되는 견해를 놓고 조정하고 합의하려고 할 때,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우리는 토론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토론은 건강한가? 잠시 우리의 토론문화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지금처럼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토론문화에서는 오로지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합리적 이성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토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성적 훈련을 받지 못한 시민은 애당초 토론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논의에 끌어들이는 토론문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성과 감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이성적 인간을 우위에 두는 토론문화는 지배와 피지배의 암묵적 문화를 보편화시킨다. 다양한 학문적 논의와 과학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이성중심주의가 계속해서 토론의 규제원리로 작동해도 괜찮은가? 이성을 우위에 둘 경우 토론이 민주적 합의방식보다 하나의 권력행사방식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새로운 토론문화의 조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발언을 우선시하는 토론문화는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언의 동등성만이 아니라 능력의 평등성까지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발언의 동등한 기회만을 생각하는 토론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위의 평등과 능력의 평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정한 논리와 근거를 토대로 하는 논리적 토론은 명제에 따라 논리적 추

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명제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면 의견일치가 될 수 없으며 결론을 낼 수 없는 끝없는 담론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 이는 논리적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과, 논리적 토론이 소통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논리적 토론은 상호소통의 공유라기보다는 논리가 다른 서로의 규칙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호소통을 통해 사고를 교환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토론양식의 보완이 요구된다.¹⁹⁾ 수사학을 적용한 토론양식을 고민할 시점이다.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는 논리적 토론에서 소통에 방점을 찍는 수사적 토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수사학적 토론양식이 합리와 비합리를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언어적 규제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가치와 기준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다. 더 나아가서는 논의과정에서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배려한다. 무엇보다도 논리적 이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토론에서 탈피하여 경험과 감성도 동등하게 표현하고 중시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9) 가끔 TV 토론을 보면, 상대는 물론 청중도 안중에 없는 듯 하고, 오로지 내 논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몰두하는 패널의 모습을 만난다. 참 불쌍스럽다. 말싸움에만 치중하는 화자에게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상대를 고려하는 공감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상대와 청중들과 함께 어우러져 꼭 차 있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내 나무만 키울 생각만 해서야 쓰겠는가? 어떨 때는 토론이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토론은 대화여야 한다. 그것도 품격 있는 대화 말이다. 대화는 둘만 하는 게 아니다. 참여한 패널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고, 지켜보는 청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어원상으로도 그게 맞다. 구성원들 사이에 말이 지나가 통해야 대화가 된다. '사이와 틈' 그리고 '통합' 이게 대화의 핵심개념이다.

<참고문헌>

- 김세원, 2017, 『진정성 개념과 그 윤리적 함의: 아렌트와 리퀴르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종영, 2012, 「말하기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서울대학교 강좌 공통 강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16집, 65-95.
- 김종영, 2018, 「한국의 교양교육과 소통교육」,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32집, 33-58.
- 김종영, 2020, 「키케로의 수사학과 후마니타스(Humanitas)—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을 중심으로」,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38집, 35-76.
- 김종영, 2022, 「대선토론과 품격의 수사」, 『2022 한국수사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46-56.
- 김태완, 2004,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 데이비드 분, 2021, 『대화란 무엇인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생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변화의 시작점』, 강혜정 역, 에이지 21.
- 마셜 로젠버그, 2017, 『비폭력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캐서린한 역, 한국NVC센터.
- 서울대학교 SNU 토론한마당 준비위원회, 2016-2022, 『SNU 토론한마당 운영 및 평가보고서』 (2016-2022),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아리스토텔레스, 2017,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숲.
- 와타나베 신이치로, 2002, 『천공의 옥좌.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임대회·문정희 옮김, 신서원.
- 오지호, 2020, 「헤겔과 자연주의」,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31집, 55-78.
- 요아힘 크나페, 2019, 『현대 수사학』, 김종영·홍철영 옮김, 진성북스
- 윤선구, 2017, 「대화의 정치와 합리적 의사소통」, in: 정문길 외 (2017) 『삶의 정치, 대화의 정치』, 사이너머 총서 5, 대화문화아카데미.
- 이아라, 2013, 『7가지 시간개념 연구 - 신수사학과 인지언어학으로 본 속담과 현대 텍스트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길 외, 2017, 「삶의 정치: '정치'개념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일 시론」, in: 『삶의 정치, 대화의 정치』, 대화문화아카데미.
- 정정문, 2007, 『수사학적 토론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2001,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출판부.
카임 페렐만, 2020, 『수사 제국. 수사와 논증』, 이영훈·손장권 옮김,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Grice, H.P., 1967, Logic and Conversation, in: H.P. Grice,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London 1989, pp. 22–40.

G.W.F., Hegel, 1977,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 A.V. Miller, Oxford University
Press.

Knape, Joachim, 2000, *Was ist Rhetorik?*, Stuttgart.

Knape, Joachim, 2009, Rhetorik des Gesprächs, in: Joachim Knape(ed.), *Rhetorik im
Gespräch*. Ergänzt um Beiträge zum Tübinger Courtshiprhetorik–Projekt,
Berlin, pp.13–52(=neue rhetorik 4).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36422

A Study on a New Debate Model Pursuing Dialogue and Communication:

Focused on SNU Debate Forum

Tschong-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 debate should be focused on understanding, relating to, and persuading the opposition team rather than on refuting the opposition team with the superiority of logic. Participants of a debate not only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arguments, but also should endeavor to communicate with magnanimity and generosity, understanding the opposition team's inherent argument. Therefore, dialogue and communication are as essential as rhetoric is in a debate. From this point of view, I argue that the focus of a debate should be shifted from logic to rhetoric. Focusing on SNU Debate Forum as a debate model that focuses on dialogue and communication, analyzing the traits of the debate resolution and the debate model, I would like to explore the direction the new debate should be headed to. The new debate model, that provides the openness of communication and emphasizes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especially highlights dialectic attitude and rhetorical communication.

Keyword ● debate model, dialogue, communication, rhetoric, SNU Debate Forum

■ 논문투고일 : 2022. 12. 06. ■ 심사완료일 : 2022. 12. 21. ■ 게재확정일 : 2022. 12. 22.

